

수상태양광 공론화 설문조사

군산시, 성공적 사업위해 시민토론회 추진

성공적인 시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을 위해 균형잡힌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시는 새만금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사업 공론화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성공적인 시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사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 시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에 걸쳐 실시된 설문조사에는 군산에 거주하는 일반시민 총 1,114명이 참여했다. 설문에는 남성 561(50.4%)명, 여성 553(49.6%)가 참여했으며 60(29%)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20(22%)대, 50(21%)대 순이었다.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8%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42%가 '아니다'고 대답해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 '수상태양광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의견이 47%로

가장 높았고, 긍정의견이 37%로 부정의견 15%를 앞질렀다.

'군산시민들이 부지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가 45%로 가장 높았고, 긍정의견이 42%, 부정의견 13%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사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군산시 수상태양광 사업의 어떤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시민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환경적 영향 50%, 경제적 이익 37%, 사회적 영향 7%, 기술적 안전성은 8%로 환경적 영향 및 경제적 이익에 비해 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는 미래의 숲 조성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동참해 시민현수로 기증한 소나무를 조촌동 일원 공원에 식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현수' 푸른 공원 조성

군산시, 조촌동 철길공원·어린이공원 소나무 식재

군산시는 미래의 숲 조성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동참해 시민현수로 기증한 소나무를 조촌동 일원 공원에 식재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수 기증자인 욱구읍 거주 서완석씨는 '시민참여 현수운동'에 참여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사용돼달라며 1,500만원 상당의 소나무 84주를 기증했다.

이번에 현수 받은 소나무는 조촌동 철길공원 및 제91호, 92호 어린이공원 공한지에 조경 수목으로 식재해 사계절 푸른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됐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수목을 기증해 주신 현수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주신 현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10년간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무심기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숲 조성 등 생활 속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시민 건강권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군산=한영봉 기자

시 관계자는 "소중한 수목을 기증해 주신 현수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주신 현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10년간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무심기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숲 조성 등 생활 속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시민 건강권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군산=한영봉 기자

'역사·문화와 미래가 함께 하는 행복도시'

익산시, 도시발전 청사진 제시

익산시가 '역사·문화와 미래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 도시발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익산시는 백제역사·문화 유라시아 철도 거점도시, 세계식품산업 중심지로서의 성장을 위한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주민 공청회를 오는 28일 예술의전당에서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방안 마련과 성장전략, 미래상을 설정·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미래상, 계획목표와 지표설정, 공간구조, 부문별 계획과 이에 따른 정책계획·

전략 마련 등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시는 시민계획단을 구성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토론회와 의견 수렴, 분야별 추진전략 등을 종합해 미래상을 선정했다.

공청회에서는 백제역사문화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 유라시아 철도 기반 물류거점도시, 세계식품산업 및 4차산업 분야 일자리 경제도시, 전국 최초 환경친화도시 등 4대 계획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한다.

시는 이에 앞서 기존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2035년 익산 도시기본계획

(안) 수립에 착수했다.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재정비되는 마련된 도시기본계획(안)은 관련 부서 협의와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2022년 전북도의 승인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35 익산도시기본계획은 훗날 20년을 내다보는 익산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치민 만큼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시민 분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 중앙동 뉴딜사업, 2021년 도시재생 사례공유 발표대회 최우수상

군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도시재생 사례공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비즈니스분야)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우체통거리 사례공유 발표대회 최우수기관 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쾌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도시재생 사례공유발표대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마산에서 개최되며 2021년 도시재생사업발표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시상식은 개막식 행사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2021 도시재생사업발표

회'에서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선도사업(중앙동, 해신동, 신북동 등) 군산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서로 소통·공유·홍보하는 자리를 갖았다.

특히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미중물사업 중 하나인 '체보스토리1899 복합커뮤니티조성사업(구·수협동부어관장리모델링)'을 주제로 대회가 참가했다.

수산업의 쇠퇴로 오랫동안 방치된 구·수협동부어관장을 수제맥주판매장과 예술콘텐츠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 주민주도로 설립한 마을기업(체보선창 협동조합·수제맥주 부산물 활용한 맥아바제조·판매) 활성화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처간 킷키어를 과감히 없애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상생을 위한 핵심 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공업으로 공동체 활성화, 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 마을기업 운영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 이웃사랑 성금 200만원 기탁

군산시는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문미숙)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웃돕기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문미숙 연합회장은 "전달된 성금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과 귀한 성금을 전달해 주신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에 감사드



리며, 군산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는 사랑의현열 챌린지, 코로나19 위기극복 성금 기탁, 소외계층 연탄배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며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군산=남영봉 기자

지역 소식통

원대병원 양연식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수상



원광대학교병원 양연식(안과) 교수가 '제5회 세계 눈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양연식 교수는 어린이와 노약자의 실명 예방 사업에 동참하여 국민들의 눈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강 증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 교수는 망막진료 분야의 권위자로 매년 의료 캠프다이나를 찾아 해외 의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전주한방병원에 안과를 개설, 매주 토요일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시의회 의장단과 간담회 개최

군산시는 시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사업과 시정 발전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군산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문화도시 공모사업 등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회와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군산시 현안 사업을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시정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